

충청남도 문화정책의 분석과 과제¹⁾

정병웅 | 순천향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문화와 문화정책

다양하게 정의되어지는 문화²⁾는 그 자체가 매력적인 것이지만 지역사회의 상징으로서 갖는 가치도 크다. 그것은 문화가 본래 지역의 역사와 전통, 세대를 넘어 전승하고 그 바탕위에서 새로운 교류와 창조를 반복하며 삶의 풍요를 증가시키는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는 삶의 질의 척도이자 사회통합의 연결고리이다. 나아가 최근의 문화는 문화콘텐츠라는 이름으로 지역의 기술과 산업 분야에서의 창조 활동에 자극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원론적인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은 주민 개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자주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는 한편, 개인이나 단체의 활동상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원하는데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문화의 학습, 창조, 전달, 향수, 축적의 원활화를 기하도록 조건과 기반을 정비하는데 있다. 이러한 문화정책의 기초 하에 최근에는 ‘문화적 힘’을 중심으로 국가 및 지방을 경영하려는 ‘문화시대’가 도래하면서 자치단체들이 지역의 문화를 중시하게 되었다.

각 자치단체들은 지역문화의 보존이나 전승과 같은 전통적 문화정책의 범주를 뛰어 넘어 특성 있는 지역문화예술의 발굴을 위해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중장기 문화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의 문화자원을 산업화하는 등 ‘지역문화의 힘’을 통해 지역을 활기있게 하려는 지역 활성화 전략, 또는 문화를 통한 지역경영전략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1) 본 원고는 필자가 참여했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간한 “한국의 지역문화”(2007)에서 발췌·수정한 내용임

2) 문화인류학자 Tylor에 의하면 문화란 사회의 한 성원으로서의 인간에 의해 습득된 지식, 신념, 기술, 도구, 도덕, 법, 관습 및 그 밖의 능력과 습관 따위를 포함하는 복합총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본 글에서의 문화는 이러한 문화적 정의를 염두에 두면서 보다 문화예술의 측면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문화에 대한 지역민의 향수 욕구와 지역민의 문화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때에 충청남도 문화정책의 진단과 방향 전개를 모색하는 것은 더없는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먼저 거시적인 측면에서 충남의 문화행정과 정책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정책이 미시적 측면에서 지역문화에 어떻게 지원되는지를 지원정책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문화정책과 지원정책의 분석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통해 충남지역 문화정책의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충남 문화행정 및 정책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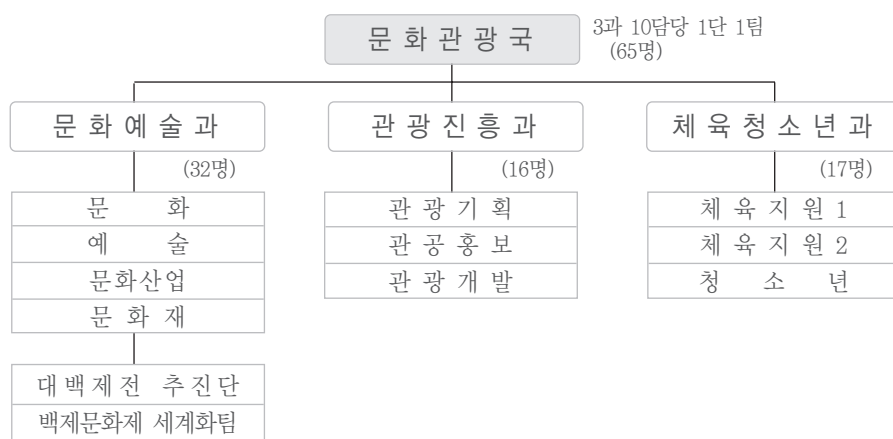
먼저 충남의 문화 정책 방향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충청남도의 문화정책 방향은 문화의식, 지역문화자원 육성, 문화산업단지 조성, 정보화마케팅 추진, 문화인력 단체육성, 문화행정 재정지원 등 6개 분야로 특화되어 진행되고 있다. 표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지역민 개개인의 문화를 자극하거나 자주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는 정책은 문화의식 부문의 일부 사업을 제외하면 거의가 문화관광정책으로 결국은 문화관광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1> 충남 문화정책 추진방향

구 분		정 책 추 진 방 향
문화의식	문화관광의식에 대한 접근인식의 변화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세기 고부가가치의 지식산업으로 문화산업 인식 홍보 · 지역주민과 사업체, 문화관련 종사자들의 문화 교육 실시 · 정책추진 공무원의 여가·문화·관광의 연계된 문화산업 인식
지역문화 자원육성	특화된 지역문화 자원의 발굴·육성으로 명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역사·해양문화 특성별 광역문화권 개발계획 추진 · 생태·역사문화·농어촌 어메니티 자원의 그린투어리즘 육성 · 인삼·머드·모시·젓갈축제 등 지역축제를 세계화 축제로 발전
문화산업 단지조성	문화산업단지의 차별화 조성 문화도시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의 영상미디어, 영상애니메이션산업 개발 · 보령 시네마월드 영화산업 육성 · 공주·부여의 문화산업단지의 디지털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정보화/마케팅추진	충남 문화의 콘텐츠 개발 및 정보화·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제·내포문화권의 문화원형 콘텐츠 발굴·육성 · 게임·영상·관광정보의 시스템 구축 및 인터넷 상품화 추진 · 정보화·국가기관 및 단체를 통한 국제마케팅 실시

구 분		정 책 추 진 방 향
문화인력단 체육성	지역대학과 단체를 활용한 문화관광 전 문인력 양성과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대학을 활용한 전문인력 양성 및 문화관광인력 활용 · 문화·숲·생태해설사 등의 양성 및 안내제도 확대 실시 · NGO 중심의 문화·관광·환경 연계 자원봉사자 참여 사업
문화행정 재정지원	지역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 재정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의 문화관광정책과 연계한 사업의 시범 선정 추진 · 인접 시도·시군 간 문화관광 협력정책 및 사업의 추진 · 문화와 연관된 군특 회계의 통합 사업 추진

실제 충남의 문화정책이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충청남도 문화관련기구인 문화관광국을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문화관광국은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청소년과 등 3과 10담당 1단 1팀으로 구성되어 65명의 공무원이 업무를 분장하고 있다. 1단 1팀은 특히 백제문화제에 대한 지원행정 부서이다. 특히 유의할 사항은 여느 지자체와 비슷한 형태로서 주로 관광 업무에 치중되어 있고 문화 분야라 하더라도 문화산업분야에 치우쳐 기구 내에서의 문화 분야 지표의 위상을 읽을 수 있겠다. 문화관광국의 65명의 담당 공무원으로 3급 1명, 4급 4명, 5급 11명, 6급 22명, 7급 18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인원 중 문화예술 분야가 정원 23명에 32명의 현원으로서 가장 많은 인원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이는 백제문화제 지원 인력으로 증가된 인원이고 문화산업 분야를 제외한 순수한 문화지원 인력의 비중은 열악하다고 봐야 하겠다.



〈그림 1〉 EU의 재생에너지공급목표

문화관광국의 역할 (Mission)

- 문화예술의 창달 및 전통문화의 보존·전승 발전
 - ☞ 세계화·문화산업화 역량 강화, 고품격 문화서비스 제공
- 문화·관광 산업의 육성
 - ☞ 문화·관광 기반시설 확충, 권역별 특화 프로그램 개발, 관광객 유치증대
- 체육시설 확충과 생활체육 활성화로 도민 「삶의 질」 향상
 - ☞ 스포츠마케팅 강화, 각종지로 지역경제 활성화



전 략 과 제

- 과제 1 백제문화권의 종합발전전략 추진
- 과제 2 도민만족의 품격높은 문화·예술활동 전개
- 과제 3 서해안을 국제적 휴양·레저지역으로 육성
- 과제 4 역사문화 중심도시의 명품충남 프로젝트 추진
- 과제 5 특성화된 문화관광자원 개발
- 과제 6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마케팅 강화
- 과제 7 건강증진·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체육인프라 확충
- 과제 8 체육강도 위상 제고를 위한 전국체전 상위 입상

자료 : 충청남도 문화관광국 내부보고서

〈그림 2〉 문화관광국의 역할과 8대 과제

충청남도 문화관광국의 슬로건이 “가장 오고 싶고, 투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충남”이다. 그리고 [그림 2]에서 보듯이 8개의 과제와 문화관광국의 역할을 크게 문화예술의 창달 및 전통문화의 보존·전승 발전과 문화·관광 산업의 육성, 체육시설 확충과 생활체육 활성화로 도민 「삶의 질」 향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문화지표와는 상관없이 투자 유치와 관광개발 등으로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은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문화예술과의 업무 분야를 살펴보면 분명하다. 순수 예술분야의 업무분야는 극히 열악한 상태이고 주로 문화산업분야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문화재 분야가 큰 것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백제문화 복원 등 전통문화가 지역 관광산업과 문화산업에 중요한 콘텐츠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업무

	예술분야	문화산업분야	문화재분야
업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예술 업무의 종합기획 · 예술단체의 지원 육성 · 공립예술단 지원 육성 · 민속예술 발굴 보존지원 등 관련사항 · 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영관리 · 영화진흥 및 공연사무와 등록 등에 관한 업무 · 그 밖에 지방예술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문화산업육성 종합 계획수립 시행 · 문화산업기술개발 및 연구사업 지원 · 문화산업 관련 해외 협력 체계 구축 지원 · 출판사, 인쇄소 등록에 관한 사항 · 문화산업인력육성 및 창업지원 · 문화산업기반조성 · 게임·음반·비디오물 등 관련 사업 진흥 및 지도 · 기타 문화산업 등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보존관리 종합계획수립 · 문화재위원회 운영 · 문화재 발굴 지정 및 해제현상변경 등에 관한 사항 · 문화재 보수정비에 관한 사항 · 전통사찰 및 향교 서원 충효열시설보수 정비 등에 관한 사항 · 자연문화유산 발굴 및 보존관리 등에 관한 사항 · 무형문화재 발굴지정 보호육성 · 백제문화권 문화유적 정비에 관한 사항 · 고도 옛 모습 되살리기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문화재기술 및 설계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충남의 문화예술 지원 정책 현황

충남의 문화예술 지원 정책은 크게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개최를 지원하여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는 것과 예술단체 지원 사업 및 도민의 문화예술교육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예술 공연·전시 개최는 미술, 국악, 연극, 사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대회 개최를 주관하고 필요 경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수행되고 있다. 전시 분야에서는 미술, 서예, 사진, 서각 등의 영역에서 충남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데뷔를 하거나 자신의 기량을 확인할 수 있는 대회를 매회 개최하고 있다. 운영 방식은 주로 관련 분야의 문화예술단체 및 협회 등에서 주관하고 도에서는 개최비용을 지원하는 형태로 수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공주국제미술제, 자연미술비엔날레와 같이 시지역 일원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행사에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 공연 분야에서는 연극제, 풍물대회, 국악제, 무용제 등 다양한 영역의 예술 경연 대회나 축제에 지원을 하고 있다. 특이한 사항은 전액 도비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공연 행사 중 풍물과 관련한 행사가 주부풍물경연대회, 일반풍물경연대회, 학생풍물경연대회로 총 3건

이나 된다. 또한 민족대제전이나 사물놀이경연대회 등 민속 분야 행사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3〉 예술단체 지원사업

(2007년 기준)

구 분	사 업 건 수	집 행 예 산 (백 만 원)
충남 문예진흥기금 사업	8개분야 287단체	710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	43개 공연작품	446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지원	37작품	320
충남사랑티켓사업	-	151
민속시범학교지원	16개학교	64
충남문화예술인회	-	-

자료 : 『2006 도정백서』를 참조하여 필자 재작성

예술단체 지원 사업으로는 〈표 3〉과 같이 총 6개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충청남도 문예진흥기금이 1986년도부터 조성·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도 말까지 3,976백만원이 조성되었고, 2006년도에는 전통예술 등 8개 분야 287개 단체에 656백만원을 지원하였다. 2007년에는 총 710백만원(중앙기금 280, 도비 280, 도기금 150)으로 지역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 공연예술 활성화의 일환으로 예술단체의 제작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지원과 충남사랑티켓사업 등이 있다.

〈표 4〉 문화예술교육 지원

(2007년 기준)

사 업	예 산 (백만원)
충남연정국악원 운영	421
국악강사풀제 운영	472(국비 236, 도비 236)
학교문화예술교육시범사업	360(국비 180, 도비 90, 시군비 90)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280(기금 140, 도비 70, 시군비 70)

〈표 4〉와 같이 문화예술교육 지원으로는 충남연정국악원의 운영을 비롯하여 국악강사풀제운영, 학교문화예술교육시범사업과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사업을 하고 있다.

충남연정국악원의 경우 공주시에서 운영을 주관하고 있으며 충남도에서는 국악강습, 지역 순회강습, 청소년 어울마당 등 문화예술교육에 소요되는 비용과 국악원 운영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국악강사풀제 운영은 초·중·고등학교에 국악강사를 파견하여 학생들에게 국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학교 문화예술교육시범사업은 충남도 자체 사업은 아니고 문화관광부로부터 초·중·고등학교와 문화예술교육기관이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폭넓은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는 사업이다. 여기서 충남도는 사업 관리를 총괄적으로 담당한다. 기타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사업은 학교 문화예술교육시범사업과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만 대상이 탈학교 청소년, 미취학 아동, 여성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충남 문화정책의 과제와 발전방향

충청남도 문화정책은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바, 순수 예술이나 문화에의 투자와 기반시설 구축이 시급하다. 또한 지역별 문화공간의 생활문화 활용가능성을 타진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지역민의 문화향유를 위한 문화정책이 대외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관광산업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하에 지역민 및 생활 중심의 문화인식과 개발 마인드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정책부서에 문화 마인드를 가진 문화전문가를 적극 채용하여 문화단체와 집행부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충남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첫째, 지역의 문화예술 역량과 자생력 강화가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문화예술단체의 지원도 보다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사업이지만 무엇보다 신진 문화예술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우수한 역량을 갖추고도 자신의 역량을 의욕적으로 펼칠 수 있는 활동 무대가 없다면 그것은 결국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된다. 현재 충남도에서는 연극, 무용, 합창, 국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경연대회를 매회 개최하고 신진 발굴에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1회씩 개최되는 경연의 방식이 아니라 잠재력 있는 신진 문화예술인에게 작품 제작이나 공연, 전시 등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지원해주는 것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문화예술 활동의 생활화를 보다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의 문화적 힘은 전문 문화예술인의 규모나 수준에서만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역 주민의 문화적 감수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문화예술을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하나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아마추어 수준부터 준전문가 수준에 이르기까지 생활 문화예술 동아리(소모임) 육성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충남 지역 전체의 문화예술 정보에 대하여 다양하고 일목요연하게 접근가능한 문화예술 정보 포털 사이트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충남도에는 충남 지역 전체의 문화예술 공연이나 전시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는 포털 사이트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지역 주민들이 쉽게 문화예술 정보를 접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사이트 구축과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충남 지역의 문화예술인의 활동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지역 문화예술인의 요구와 지역 문화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정책을 입안과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이들의 현황에 대한 진단과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 개념에서 핵심적인 것은 인간다운 삶의 방식 내지는 그 추구이다. 따라서 문화정책 역시 문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은 이러한 인간의 삶을 인간답게 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는 뜻일 것이다. 오늘날 문화 향수와 욕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의 문화는 여전히 변방의 문화로서 여전히 열악하다. 따라서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은 지역문화 고유의 특수성과 향토성을 담보하면서 인간다운 삶의 구현이라는 전제 하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 열거된 몇 가지의 제안도 그러한 측면에서 이루어졌음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참고문헌

- 현승일, 사회학, 박영사, 1996.
 최재승, 문화를 읽는다 미래를 본다, 나무와 숲, 200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편, 한국의 지역문화, 대왕사, 2007.
 임재해, 지역문화 그 진단과 처방, 지식산업사, 2004.